

사회복지시설 탐방 ㉔ 누리는 공동체 원장 이민영

소외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쉼터



누리는 공동체는 소외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쉼터로 현재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01번지에 터전을 마련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다. (원안 이 이민영 촬영)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1급 뇌성마비나 정신지체 장애인, 노인으로서 시설에 맡겨지는 사람들 중 형편이 어려운 측에 속한다고 한다.

이 목사는 "지난해까지는 10여 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병세의 악화 등으로 올해까지 6명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며 "시설이 열악하고 경제적 사정 또한 열악하기 때문인지 신규입소자가 없어서 시설운영에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는 공동체는 현재 후원과 수입의 부재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원금 및 장애인수당 등 1인당 39만원정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민영 목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원 창출을 위해 개사육 및 컴퓨터 수리 등 시설 및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목사는 "목회 시절 교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을 습득해 최근 이동식 컴퓨터 수리점을 시도해 보고 있다"며 "시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니 만큼

요한 3가지지를 노력봉사, 물질 및 경제적 후원이라며 ▶노력봉사로 가사, 외출, 정서, 의료, 교육, 목욕이 필요하며 ▶물질후원으로는 소모품, 파복, 생활용품, 학용품, 의약품, 먹거리가 ▶경제적 후원으로 자발적인 후원금이 필요하며, 후원방식은 정기, 수식, 물품, 자원봉사, 홍보, 기부회원 등으로 하면 된다.

이 목사는 "앞으로 누리는 공동체는 신고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토지 매입, 건물 건축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이어나간다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어 "지금처럼 소외된 모든 이들의 인식처로서 사람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후원: 하나은행 158-110081-00108(예금주 이민영)
문의: 031-532-4333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외된 노인, 장애인, 아동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공동체는 소외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쉼터로 1995년부터 개척교회인 초가소망교회에서 목회를 맡았던 이민영 목사(44)가 목회를 뒤로하고 2002년 신북면 가양리 고개에 설립, 2004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01번지에 터전을 마련한 사회복지시설로 미신고시설로 분류된 곳이다.

누리는 공동체를 설립한데는 1997년 9월 목회 중 평생처를 접한 장애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부터라는 것이 이 목사의 설명이다.

이 목사는 이후 목회생활의 어려움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의 돌봄에 뜻을 두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가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 현재 사회 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 시설은 현재 타인의 대지에 기존 건축된 조립식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노인 및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포천 심터

원송이의 집착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인도인들에게는 원송이를 사로잡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한다. 먼저 코코아 열매의 속을 파낸 다음 원송이가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구멍을 파고 이 구멍 속에 잘 한 줌을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 이 코코아를 나무 통지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두면 호기심에 사로잡힌 원송이가 코코아 열매를 들여다보다가 속에 쌀이 있는 것을 보고는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쌀을 움켜쥐게 된다. 그러나 쌀을 씹는 쌀을 움켜쥐진 상태에서는 손을 빼낼 수가 없다. 아무리 경경거리도 손을 빼낼 수가 없지만 원송이는 결코 움켜쥐진 쌀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이때 사람이 가서 원송이를 간단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한줌의 쌀이 어찌 원송이

만 해당되었는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 숨 막혀 하는 사람, 스스로의 능력을 끝없이 비판하여 나락의 길을 걷는 사람, 자신의 욕을 빠져 모두를 배척하는 사람... 모두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영영 저당 잡히고 마는 저 원송이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잡을 때와 놓을 때를 아는 사람이고, 남을 때와 떠날 때를 알아야 하고, 앓을 때와 설 때를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함상 반문하여 어리석음의 덫에서 벗어날 일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은미의 첫소 사랑이야기 ①

본지는 이른바 주부명예기자단 총무의 목장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연재한다. 본 연재를 통해 목장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세상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송아지의 탄생

"새벽 3시 30분 연중 염마 일어나 뵈!"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리를 잘못 잡아서 역산으로 나온다고 한다. 나는 작업복으로 같이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어미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통이 시작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송아지가 역산으로 자리를 잡고 너무 커서 어미소는 아주 힘들어 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송아지가 잘못되면 어쩌지?

제발 건강한 송아지를 낳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만줄을 당겨 주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수의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 4시 30분 쇠췌관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선생님 영천목장 아예요!"

"조임소가 송아지를 낳으려고 하는데, 역산에다 송아지가 너무 커서 걱정이예요!"

5시 수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셨다.

식용유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분만줄을 당겼다. 정상으로 분만을 하면 머리부터 나오는데 송아지가 다리부터 나왔다. 솟송아지였다. 송아지는 아주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인공 호흡을 시키고 몸을 마사지 하듯 한참을 주물러 주었다. 30분 뒤에 정상으로 숨을 쉬며 몸을 지탱했다.

아침에 어미젖을 먹은 송아지는 점차 기운을 차리며 혼자 몸을 움직였다. 어린 송아지와 함께 목장의 새로운 아침이 활짝 웃어 유수리와 함께 열었다. 염마소야! 무사히 송아지를 낳아주었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면 금현리

일동농협 신영필·소흘농협 박범중 후보 당선

신 조합장 "열린경영과 화합경영 변화의 바람" 박 조합장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게 할 것"

지난 9일 실시된 일동, 소흘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일동농협 조합장 신영필(47세) 후보와 소흘농협 조합장 박범중(59세)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일동농협 조합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 2천757명 중 2천116명이 투표에 참가해 73.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기호 2번 신영필 후보가 1천 334표로 유효투표 67%를 차지해 689표를 얻는데 그

친 이병찬 후보를 66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또 소흘농협 조합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 2천300명 중 1천54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기호 1번 박범중 후보가 유효투표 1천547표 중 51%인 782표, 기호 2번 고은태 후보가 49%인 753표를 획득해 29표차는 근소한 차이로 박범중 후보가 당선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남궁중 포천시 산림조합장 당선

50명 대의원 간접선거인단 43표 얻어

17일 실시된 제16대 포천시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남궁중 후보가 박승근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남궁중 후보는 전체 조합원 2천 900여명을 대표하는 대의원 5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43표를 얻어 7표 보 득표한 박승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포천시 산림조합 제154회 임시총회와 병행해 실시되었으며, 선거에 앞서 후보자 정경발표, 후보자 상호토론, 방청객 질문, 후보자 자유발언 등이 실시됐다.

남궁중 당선자는 당선발표 소감에서 "선거운동을 함께 열심히 해 온 박승근 후보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대의원과 조합원

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4년간 포천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장으로서 분골쇄신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중 당선자는 포천종교와 경북대 경영과를 졸업했고, 군내면 예비군타격대장, 군내면 체육회 감사, 포천시 검토회 이사, 포천군 운영위원, 포천시제21추진협의회 위원,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 포천시 새마을운동지회 이사, 포천동 체육회 이사, 포천군 18회 동향회 회장, 포천군 총동문화 부회장, 포천리온스 회원, 포천시 산림조합 사무이사, 포천시 산림조합 전무 등을 역임했다.

남궁 당선자는 오는 9월9일 포천시 산림조합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남궁중 조합장 남궁중 당선자

"조합원 위한 소득사업 대대적 전개"

▶당선 소감은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후보는 다름 아닌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산림조합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앞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고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하겠다.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이다.

▶임기중 중점 추진사업은 먼저 소흘읍에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소를 개설할 것이다. 아울러 읍면별 지소를 개설해 여수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림단위 조직정비 및 운영방향을 개선해 조합원을 위한 소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7~8년간 꾸준히 산림조합장 선거를 준비해 왔기에 그렇지 않은 상대 후보가 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례는 선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처남매제 지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고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하겠다.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이다.

▶임기중 중점 추진사업은 먼저 소흘읍에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소를 개설할 것이다. 아울러 읍면별 지소를 개설해 여수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림단위 조직정비 및 운영방향을 개선해 조합원을 위한 소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일동농협 신영필 당선자

"변화의 시작은 조합장이 솔선 수범해야"

▶당선 소감은 일동 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취임하면 운영방침을 현장중심으로 바꿀 생각이다. 농민들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정말 외롭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롭게 판매해 왔다. 농민들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농협이 도와 줄 것이다. 농민들이 첫 출하하는 단계에서 농협이 도와 줄 것이다. 농민들이 첫 출하하는 단계에서 농협이 도와 줄 것이다. 농민들이 첫 출하하는 단계에서 농협이 도와 줄 것이다.

▶당선 소감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선거법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각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장에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릴 수 있는데 선거법은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전화나 홍보를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당선된 주요요인은 처음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른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안하고 지원해 준 것이 당선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동남과 출신으로 동남과 탁구 후원회장과 동남과 신약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 당선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투표당일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 시간은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 소흘농협 투표를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투표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소흘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은 농협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농협의 문턱을 낮추고 책임경영을 농협이사, 대의원, 직원들과 의논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과 농협의 어려움을 잘 알고 때문에 영농하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① 소흘농협을 조합원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경영 운영 ②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위원회 구성 ③ 소흘농협 본소이전 및 조합원의 휴게소 운영 ④ 농협장래예식장 건립추진 ⑤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로 환원사업 확대 ⑥ 문화복지 사업 확대 등은 재입하는 기간동안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농협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소흘농협 조합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농협장래예식장이라고 생각한다. 관내 장래예식장이 있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면 조합원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않도록 잘 협의해서 임기 중에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 간 단합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협이 어떤 방향으로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소흘농협 박범중 당선자

"농협발전은 농협 투명경영에서 시작된다"

▶당선 소감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선거법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각 조합원을 방문해 조합장에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릴 수 있는데 선거법은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전화나 홍보를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당선된 주요요인은 처음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른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안하고 지원해 준 것이 당선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동남과 출신으로 동남과 탁구 후원회장과 동남과 신약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 당선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투표당일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 시간은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 소흘농협 투표를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투표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소흘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은 농협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농협의 문턱을 낮추고 책임경영을 농협이사, 대의원, 직원들과 의논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과 농협의 어려움을 잘 알고 때문에 영농하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① 소흘농협을 조합원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경영 운영 ②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위원회 구성 ③ 소흘농협 본소이전 및 조합원의 휴게소 운영 ④ 농협장래예식장 건립추진 ⑤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로 환원사업 확대 ⑥ 문화복지 사업 확대 등은 재입하는 기간동안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농협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소흘농협 조합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농협장래예식장이라고 생각한다. 관내 장래예식장이 있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면 조합원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기 않도록 잘 협의해서 임기 중에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 간 단합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협이 어떤 방향으로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가산면 지역발전후원회 정기회의

포천시 가산면 지역발전후원회(회장 정삼용)는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가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가산면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지역발전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포천시의 시장 홍보사항과 지역발전 사업 등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는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는 29일 개최될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농촌사랑 한마음 음악

회 개최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가산면 지역발전후원회는 지역방위위원회의 후신으로 포천시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조직돼 있으며, 지난 2001년 6월 지역내 기업인 및 단체장을 중심으로 조직돼 불우이웃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결식아동들에게 매진해 가산면내 학교마다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급식이야기

선단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한 달에 두 번 아침 급식이 있는 날은 매우 바쁜 날이다. 이날은 급식점검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위생복을 착용하고 흰 모자를 쓰고 식품이 들어오면 유통기한과 생산일자 표시, 육류나 김치의 온도유지 상태, 야채의 신선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실시해온 이 일은 학생들의 급식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거쳐 나오는 식사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선출하여 식품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며 선생님과의 교감을

하는 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타학 교 급식점검을 다녀온 적이 있다. 내에게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어 보이고 빈틈하나 없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청결함에도 불구하고, 야채의 신선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실시해온 이 일은 학생들의 급식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거쳐 나오는 식사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선출하여 식품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며 선생님과의 교감을



조장희
주부명예기자단
선단면지부장

영북면 비둘기강과 포천동 호병골 정화활동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 포천동위원회(위원장 이한인, 이하 포천동위원회)는 지난날 29일과 지난 1일과 5일에 걸쳐 영북면 대화산리 비둘기강과 포천동 호병골을 찾아 정화활동을 펼쳤다.

포천동위원회는 연중 펼치는 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시민들의 제로 비둘기강과 호병골의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천동위원회는 포천동위원들은 호병골에서 16명이 참가 100L 쓰레기봉투 20여개 쓰레기를 수거했고, 대화산리 비둘기강에 6명이 3일에 걸쳐 100L 쓰레기봉투 40여개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한인 위원장은 "비둘기강은 군내 휴양지로 3년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 후, 오물 등 쓰레기가 계속 쌓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며 "자연경관이 좋아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포천의 자연관광 명소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고장 청소는 내가 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천동위원회의 정화활동을 계기로 아름다운 포천의 경치를 지키고 보존하자"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